“미래세대 이끄는 데 韓日불교 합심”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법주사서 거행

법주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일 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설정)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26일 속리산 법주사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본대회를 거행했다.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양국 대표단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을 통해 청소년 교류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이전까지 양국은 자국 청소년들의 해외불교 탐방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이 학술대회 발제자로 참석해 △청소년문제연구학회 구성 및 청소년 문제 연구발표 △청소년문화예술문학회 구성 및 불교소재 작품 교류 △양국 상호 방문을 통한 템플스테이 등을 제언함에 따라 실천방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국 불교계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오사카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목조건물이 대다수인 불교문화재 및 사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은 오사카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양국 불교계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청소년 중요성 양국 모두 실감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법주사 대웅보전서 봉행된 기념법회서 사부대중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의미에 공감하고, 청소년을 위해 대승적인 원력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 교류 계획 세우기로
양국 템플스테이 교류 전망
“청소년은 곧 우리들의 미래”
지진피해 예방 위한 교류도

한일불교협의회장 설정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주 신륵사에는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워 동일본 대지진 피해 영혼을 위로하고, 죠세이탄광 매몰자 등 징용 희생자에 대한 아픔을 보듬었다”며 그간의 양국 교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도둑맞은 보석을 찾는 30명의 젊은이들을 만나 ‘사라진 보석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며 “양국 불교계는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참된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들이 법주사에서 한일대회 기념법회를 마치고 대웅보전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에 일한불교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소년기, 청년기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흉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볼 때 국경을 뛰어넘은 불교문화의 교류와 교화가 급선무라 생각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의 상호이해, 우호친선이 더욱 깊어지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일불교협의회 부회장 문덕 스님과 전일본불교회장 에가와 신잔 스님 또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덕 스님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은 아주 많은 의미와 희망이 담겨있다”면서 “물질문명이 숭배되는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청소년 인격도야를 위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가와 신잔 스님은 “세계정세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전쟁, 테러 등의 가슴 아픈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고, 지금이야말로 불교의 가르침과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실감한다”며 “양국이 신봉하는 불교를 초석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더욱 크게 약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법회 이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이 마련한 사찰음식 오찬을 즐겼다. 대표단에는 법주사가 위치한 속리산 특산물인 송이버섯으로 만든 송이국과 연잎밥, 각종 채식반찬이 제공됐다.

한편 본대회가 끝난 뒤 27일에는 일본 대표단을 위한 부여 백제문화단지 탐방이 진행됐으며, 28일 일본대표단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예방을 끝으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마무리됐다.

학인 스님 중 염불 1인자는 누구일까

조계종 교육원, 9월 19일 염불시연대회

2014년 이어 2회째 열려
13개 기관 262명 참가해
전통·창작 분야로 진행

염불 1인자를 놓고 조계종 학인 스님들이 자웅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기본교육기관서 수학 중인 학인 스님들의 염불 수행능력을 겨루는 ‘2018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오는 9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인 스님들의 불교의례 의식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하며, 염불 생활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4년에 이어 4년만에 개최된다.

‘염불자수(念佛者誰)-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가 참가해 전통염불·창작염불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부는 염불시연자 1인을 기준으로 2인 이하의 보조자가 염불시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연시간은 5분이며, 단체부 참가 기준은 염불시연자 3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시연시간은 8분이다.

전통염불 참가자는 기존에 전래된 염불을 범음으로 시연하며, 창작연불 참가자는 전통염불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염불을 창작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염불시연대회에도 많은 학인 스님들이 참여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대회 접수한 학인 스님들은 13개 종단기본교육기관 262명으로 개인부 38명·단체부 20팀(224명)이다. 특히 단체팀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심사는 예선은 분야별 3인 1조로 심사위원이 구성되며, 본선은 염불 및 불교음악 전문가 5~6인으로 이뤄진다. 또한 본선은 스님과 재가자 80명으로 구성된 청중공감단도 참여해 ‘공감지수’ 심사를 한다.

이전과는 달리 전통·창착염불 부분을 나눠 대회를 진행해 시상도 나눠 이뤄진다. 개인부 대상에는 각 부문 300만원, 단체부 대상에는 각 부문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우수상·원력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국장 응관 스님은 “‘염불’은 개인 또는 대중이 함께하는 수행이자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에는 단체 참가가 늘어났다. 기관별 학인 스님들이 서로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학인들의 전법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염불시연대회(2014)를 비롯해 외국어스피치대회(2015), 토론대회(2016), 설법대회(2017)를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오온 만물의 구성요소 ‘색수상행식’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인간존재의 구성요소는 오온(五蘊)입니다. 물질적 요소인 색온(色蘊)과 정신적 요소인 수(受)·상(想)·행(行)·식(識) 4온을 합친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음(五陰)이라고도 합니다. 온이란 집합 또는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온은 인간과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의 집합입니다. 초기에는 오온이 인간의 구성요소로 설명되었으나 개념이 확대되어 현상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온이 인간의 구성요소를 의미할 경우 색은 물질 요소로서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가 화합한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기관 오근과 이에 상응하는 색·소리·냄새·맛·촉감(오경)의 지수화풍이 화합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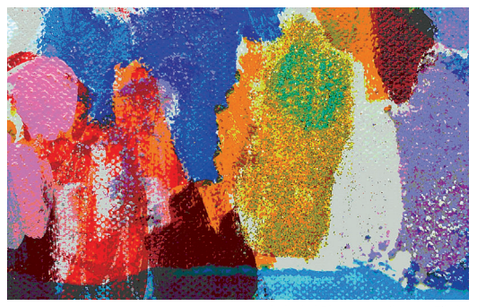
수·상·행·식은 정신적 기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受)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감수 작용입니다. 상(想)은 대상을 생각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입니다. 행(行)은 받아들인 생각을 행하려는 잠재적 형성력입니다. 수·상·식 이외의 모든 마음 작용을 총칭합니다. 식(識)은 식별하고 판단하는 의식 또는 인식작용으로 마음의 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적인 마음활동을 말합니다.

정신적 요소 4온은 물질적인 색온(형색)과 결합하여 심신(心身)을 이루므로 오온을 명색(名色)이라 부릅니다. 명색이 일어나고 육처, 촉, 수에 이어 애(愛)가 발생합니다. 애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갈애로서 번뇌장입니다. 애에 연하여 취(取)가 일어나는데 오온을 자아로 집착합니다.

탐욕과 집착이 있는 오온이라는 뜻에서 오취온(五取蘊)이라고 하는데 윤회의 원인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설하신 이유는 고(苦)에 묶여있는 인간에게서 오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일러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개인의 존재는 오온의 화합으로 성립합니다. 오온은 상호의존적인 인연


오온-인연 가화합 그림·조향숙

오온가화합 연기현상 ‘나’
자아에 대한 집착 along원인
항구불변 실체없어 ‘무아’

가화합 연기현상으로 끊임없이 인연따라 생멸변화하기 때문에 항구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부 중생들은 오온 가화합을 자아의 실체로 집착하고 아집을 내세워 괴로워하고 파멸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불변의 자아관 아집을 없애기 위해서 ‘일체는 무아’라는 오온무아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과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헛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진각 혜심 국사(無衣子·1178-1234)의 게송 ‘못속의 그림자(對影)’에서 무아(無我)의 본래면목을 만나봅시다.

“못가에 홀로 앉아 / 물밑의 한 중을 우연히 만나 / 묵묵히 웃음으로 서로 바라볼 뿐 / 그대 안다고 말해도 대답이 없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템플스테이

2019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8~9월	2018년 9월	2019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7월 20일(금)**
···▸제출서류 : ① 2019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suko@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02)2031-2031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원경